

연민의 흔적

글. 천수림 작가

겨울 강은 얼어 있었다. 살그락 살그락 얼음 깨지는 소리를 보았지만, 그 소리가 그를 평생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사진 찍는 이규철 그 자신도 몰랐다. '가출'에 대한 욕망을 처음 감지하던 날의 풍경은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남아 있지만, 여덟 살 소년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지금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.

전주 봉동 외가에서 대구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. 아버지가 앞서고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그가 뒤를 따랐다. 저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모든 건 '일상'이다. 그는 갑자기 등을 돌려 겨울 속으로 무작정 걸었다. 그렇다고 해서 외가 쪽 방향도 아니었다. 눈물이 흘렀다. 물론 어머니가 그를 발견해 무사히(?) 돌아왔지만, 그의 영혼은 늘 길 위를 서성이곤 했다.

첫 가출을 감행하던 그날이 실은 그에게는 외할아버지와 마지막 만남이었다. 혹여 그 일은 소년이 막연히 감지할 수 있었던 '인연'과 '관계'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나. 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.

탱고의 거장 아스트로 피아졸라가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. "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영혼 중에서 생각하는 영혼이 행동하는 영혼보다 더 멍청하고 늘 늦게 찾아온다"고. 길을 나서는 이들을 이끄는 것은 예민한 소리다.

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몹시 행복한 일이지만 그건 천형(天刑) 같은 것이다. 그의 사진에서 나는 '소리'를 본다. 때때로 여덟 살 소년의 눈에 들어온 '살그락 살그락' 깨지는 얼음소리처럼 말이다.

누구나 자기 안에서 부딪히는 예민한 소리를 듣는다. 하지만 그 소리를 따라 나서는 이는 드물다. 채 거두어 들이지 못한 배추밭에 눈이 쌓인 검푸른 날, 나는 믿는다. 그 쓸쓸함이 그를 기어코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고.

이처럼 '낮은 것들에 대한 시선'을 견지하기란 쉽지 않다. 다행히도 그가 '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놓치지 않았음을 안다.

여기 놓인 사진들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서 울리는 소리를 따라간 '연민의 흔적'들이다. 특히 그의 가출 혹은 여행길에 동반한 소리는 한국을 포함한 우리가 주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3 세계 음악들이다. 특히 쿠바의 오마라 포르토 운도(Omara Portuondo)의 '플로르 데 아모르(flor de amor)'는 눈 오는 정선 길을 같이 밟은 음악이다. 흔히 쿠바의 국보급 여가수인 그녀를 두고 '낙관을 품은 애절함'이라 평한다.

그의 사진에도 이런 '낙관을 품은 애절함'이 담겨 있다. 쓰르륵 쓸어내는 파도소리를 닮은 듯한, 뒤돌아보고픈 마음을 애써 숨기며 걷는 산 길 위의 여인, 잠들지 못하는 태백시 철암면 탄광촌의 막막한 겨울밤, 밤새 내린 비에 몸을 눕힌 풀들의 뒤척임 같은 것들 말이다.

또 이곳은 어떤가. 저녁별이 돋을 때까지 끝나지 않은 염전의 고된 노동은 이 염부는 분명 달빛의 노래를 들었으리라. 그러나 슬픔이 묻어나는 검푸른 빛깔 안에는 어떤지 알 수 없는 달콤함도 묻어난다. 그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결코 슬픔이나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뜻일 게다.

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견디어 낸다는 것이다. 그렇기에 '빛에 대한 그리움'과 '따뜻함'으로 이 고단함과 화해하고 있다. '연민'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공통적인 연대감이 아닐까. 중국의 작가 위화도 '살아간다는 것'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. '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, 살아간다는 것 이외의 그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.' 라고.

그의 사진이 태생적으로 매우 '음악적'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. 그는 음악보다 더 음악적인 장르가 '사진'이라고 믿는 듯하다. 아마도 그는 길에 대한 욕망, 가출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을 것이다. 오랫동안 그가 길 위를 서성이길 바란다. 음악이 우리를 달래주듯, 그의 작업 역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.